"산단 들어서니 맹간제 농업용수가 말랐어요"

광주 압촌동 농민들 모내기철 물부족 아우성
에너지밸리산단 조성에 외부 유입수 차단이 원인
대책위 진정…광주도시공사 "관정 뚫어 물부족 해결"
농민들 "미봉책 불과…남구청이 근본대책 마련해야"

"당장 6월 말이면 이모작을 위해 논에 물을 대야 하는데, 산단을 조성하면서 끌어올 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주변 농민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는 겁니까?"

광주시 남구 대지동 농민들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농업용수를 끌어오던 광주시 남구 압촌동 '맹간제'가 주변에 광주에너지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물 유입이 차단돼 저수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대지동 농민 60명은 지난 18일 '대촌동 용수공급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산단 조성을 맡고 있는 광주도시공사에 진정을 냈다. 맹간제에 농업용수로 쓸 만큼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다.

맹간제는 산단 내에 있는 3만615㎡ 면적의 농업용 저수지다. 관할청인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맹간제는 1942년에 지어졌으며 현재 대지동, 지석동 23ha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곳 주변에서는 2018년부터 산단 조성 공사가 시작됐다. 공사는 석정·지석·압촌·대지동 일대 93만2312㎡ 면적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준공 예정일은 오는 8월이다.

당초 광주도시공사는 농업용저수지인 맹간제를 용도폐지하고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대지동 농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따라 산단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도 맹간제는 농업용저수지로 유지되며, 주변에 남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들어설 계획이다.

맹간제는 현재 '정체 수역'으로, 저수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주변에 별도의 수원이 없는데다 산단 조성 공사 과정에서 물이 들어올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7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맹간제는 법정보호종인 '가시연꽃'의 서식지로 밝혀졌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부터 가시연꽃을 보호하기 위해 배수로를 설치, 주변 빗물이 맹간제로 유입되지 않도록 만들 것을 광주도시공사에 지시했다.

외부 유입수가 없어지자, 광주도시공사는 2019년 지하수를 끌어오는 관정 2개를 설치했다. 다만 이들 관정은 지름 32mm로, 양수 능력이 하루 60㎥에 불과해 총 저수량 5만㎥인 맹간제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광주도시공사 자체 측정 결과 맹간제 수심은 2019년 0.75m, 2020년 1.59m에서 2021년 0.1m 수준으로 감소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공사 이후 지속적으로 용수공급 대체시설을 요구했지만, 광주도시공사는 형식적인 모양 갖추기에만 급급했다"며 "오는 8월 공사가 마무리되면 광주도시공사는 관리주체가 아니라며 발뺌하면 그만이다. 준공 이전에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도시공사는 지름 300mm짜리 대형 관정 3개를 추가 설치해 지하수를 끌어온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관할청인 광주시 남구의 무성의한 대응에도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농민 송모씨는 "2018년부터 산단 조성이 시작돼 맹간제의 주 기능이 농업용저수지에서 공원으로 바뀌게 됐는데도 저수지에 기대 농사짓는 농민들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공사주체인 광주도시공사에만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 남구 대지동의 농민이 저수량이 크게 줄어든 농업용 저수지 '맹간제'를 보고 허탈해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영농철 한달 강수량 0.4㎜…농심 속탄다

광주·전남 5월 거의 비 안 와
누적 강수량도 예년 절반
참깨·콩 등 파종 못하고 싹 안터

지속되는 가뭄으로 영농철 농심이 타들어 가고 있다.

2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5월 들어 이날 현재까지 광주에 내린 비는 0.4㎜에 그쳤다. 구례·무안·함평·장흥 등 전남지역 이달 강수량도 적게는 0.5㎜, 많은 곳은 1㎜에 그쳐 사실상 비가 거의 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광주를 비롯한 전남 대부분 지역의 5월 평년 강수량은 100㎜ 안팎으로 올 봄 영농철 가뭄이 최악 수준이다.

지난 1월부터 5월 29일까지 올들어 누적 강수량도 광주의 경우 158mm로, 평년 316.1㎜의 절반 수준이다. 전남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다.

농촌 들녘은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생겨나고 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등 농민들에 따르면 올 봄 가뭄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밭작물이다. 참깨와 고구마 등 파종을 마친 작물들은 싹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고 수확기인 마늘과 양파는 생육이 부진하다는 게 농민들 설명이다. 고추도 한창 자라야 할 시기이지만 비다운 비가 내린 지 오래여서 제대로 크지 못하거나 말라 비틀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벼농사의 경우 모내기 작업이 중반부에 이르렀지만, 수리시설이 미흡하거나 비에 의지해 농사를 짓는 천수답은 물 부족으로 모내기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김선호 사무처장은 "물이 부족해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밭작물의 경우 여력이 되는 농가는 양수시설을 가동하고 있지만, 근본 대책이 아니다"며 "다음 달 초까지 큰비가 없으면 밭작물 대부분은 말라 죽게 되고, 논농사도 천수답은 모내기를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에는 월요일인 30일까지 5~10㎜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상청은 "가뭄 피해를 해소하기엔 강수량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돈봉투 살포 시도 혐의 김기석 담양군수 후보 선거운동원 영장 기각

유권자에게 금품 살포를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선거운동원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담양경찰은 사전투표를 앞두고 금품 살포를 시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무소속 김기석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A(58)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과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공개 반발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사기관 안팎에선 다소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인해 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 금품 시도를 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자금원 추적 등 주요 수사가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담양군 일대에서 승합차에 1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싣고 다니며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차량에서는 15만원씩 담긴 봉투 40여장과 수백만원이 든 다른 봉투들이 발견됐다. A씨는 선거를 돕고 싶은 마음에 돈을 마련했고 후보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주행 중인 택시기사에 주먹 휘두른 60대 징역형

야간에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판사는 지난 2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박모(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박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2월 21일 밤 11시께 광주시 광산구 하남콜럼버스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A(67)씨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주먹으로 운전기사 A씨의 귀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한 같은 장소에서 택시에서 내린 뒤, 운전기사 A씨가 뒤쫓아 오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늑골 부위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장성 토지(매매 분양)	상무지구(상가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앞)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총분양 140평)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1억4천 (5/4)
	동구 지산동(농지)▶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4억1천 (5/4)
	북구 생용동(근린주택)▶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 7천 (5/12)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5/12)
	서구 화정동(주택)▶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7천 (5/18)
	북구 용봉동(주택)▶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 (5/26)
	동구 운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5/11)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5/18)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최저가 31억 (5/23)
	목포시 상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8천 -> 최저가 4억8천 (5/23)
시외	충남 서천군(근린주택)▶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2억2천 (5/3)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5억 -> 최저가 4억2천(5/23)

010-6670-9800